

중소형 기계주 탐방노트 #1

비엠티(086670,KQ)

: 신제품, 신사업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이동현 dongheon.lee@daishin.com

2018.10.05

현재주가 (10.04) **8,070원** 시가총액 **65.7십억원**

산업용 정밀 피팅 및 밸브, 전기분전반 생산업체

- 1988년 설립, 2000년 (주)비엠티로 법인 전환, 2007년 코스닥 상장
- 산업용으로 쓰이는 정밀 피팅(매출비중 53.8%, 상반기 기준) 및 밸브(29.8%)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신규사업으로 전기분전반(11.7%) 매출이 증가추세에 있음. 수출비중은 54.4%
- 전방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조선/해양, 오일/가스, 원자력, 바이오/제약, EPC, 정부조달 등이며 매출비중은 반도체 55%, 조선해양 및 기타 10%, 전기사업 8%, 해외직접수출 30% 등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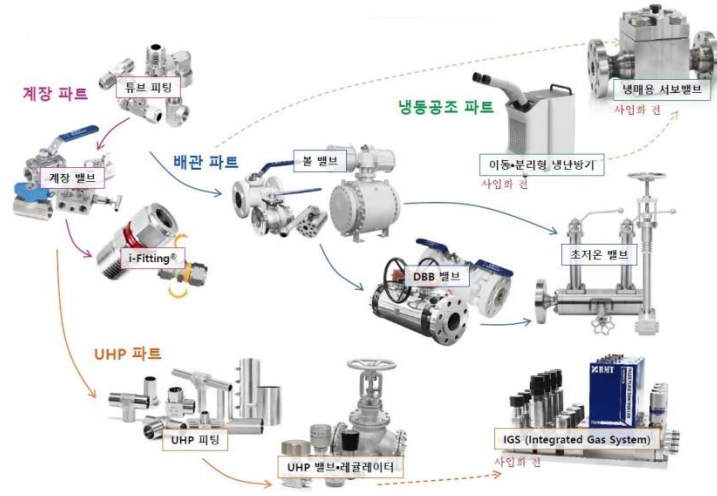
신제품, 신사업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 반도체 향 제품 개발 후 납품이 집중되며 작년 실적은 매출액 636억원(+54.7% yoy) 영업이익 60억원(흑전 yoy)으로 급증
- 현재도 1) 아이피팅(i-Fitting) 2) UHP(Ultra High Purity) 시리즈 3) 초저온밸브 4) 컴팩트 수배전반 등 꾸준한 신제품 개발로 성장동력 확보
- 1) 아이피팅은 체크링을 통해 체결 시점의 정확성을 보완한 제품으로 관련 매출액이 작년 35억원, 올해 상반기 30억원 수준으로 급증
- 2) UHP 시리즈는 고정정 가스가 사용되는 설비 및 장치의 배관라인 연결, 계장 부문 등에 적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에 사용.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며 납품업체의 벤더등록에 대한 공식 인증이 진행 중에 있음. 관련 매출액은 작년 26억원, 올해 상반기 35억원 수준으로 증가
- 3) 초저온밸브는 LNG, LPG, 에틸렌 등 유체의 처리, 저장, 운송, 배분 등에 사용. 환경규제로 LNG 사용 비중이 증가하면 선박/플랜트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음. 작년 매출액 3억원, 올해 상반기 4억원으로 아직 미미하나 국내 조선소 향 매출 증가 기대
- 4) 컴팩트 수배전반은 자체 개발한 MCBS(Molded Case Busbar System, 확장형 조립 부스바)를 적용해 부피를 기존제품 대비 40% 가량 축소. MCBS는 기존 부스바의 대비 절연성과 공간효율성을 개선.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등록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 결론이 나면 내년부터 매출 증가 기대. 기존에 하고 있는 분전반에서 연간 50억원 정도의 매출이 반영되고 있으며 배전반의 경우 분전반 대비 시장이 5~10배 가량 큼

전방산업 투자 순연으로 주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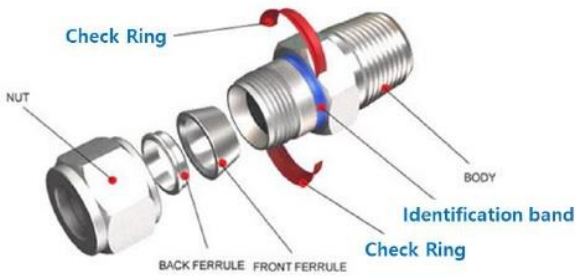
- 반도체 부문 투자가 순연되며 주가가 올해 고점대비 -35.4% 가량 하락. 순연된 투자는 내년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분야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비 실적 개선 기초 유지
- 신제품, 신사업의 지속적인 육성, 공장 자동화 지속 추진, 마진 관리 능력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은 긍정적

도표 1. 피팅 & 밸브 제품 라인업



자료: 비엠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도표2. 아이피팅(i-fitting)



자료: 비엠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도표3. MCBS를 적용한 컴팩트 수배전반



자료: 비엠티,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이동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